

제3회 흥사단 시민사회포럼

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흥사단



- 일시 : 2014년 3월 31일(금) 오후 7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

식 • 순

□ 진행사회: 문성근(흥사단 기획국장)

• 개회

□ 사회 : 이규태(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주제발표

○ 주제발표자 : 박만규(흥사단교육수련원장, 전남대 교수)

• 질의·응답 / 전체 토론

• 사회자 정리 발언

• 폐회



주제발표

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흥사단

박만규(흥사단 교육수련원장)

1. 춘원의 친일 언행
2. 춘원과 도산
3. 춘원에 대한 흥사단의 입장

□ 춘원 이광수(1892-1950)

- 0. 문학 작품 - 한국 근대 장편소설의 효시 『무정』 외 다수
- 0. 수많은 계몽 논설 - 당대 최고의 지식인, 영향력 있는 언론인
- 0. 정치, 사회 활동 - 독립운동, 수양동맹회, 수양동우회, 동우회의 지도자
- 0.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반민족친일파의 대표 인물로 전락

1. 춘원의 공개적 친일 언행

- 0. 춘원은 훗날 자신의 첫 친일행위를 1939년 3월의 황군위문작가단 참여라고 하였으나,
- 0. 이미 1938년 11월 3일 주요한과 함께 동우회사건 보석출소자의 사상전향회의를 소집해 동우회 회원의 이름으로 전향서 발표 - 이 전향서에서 춘원을 비롯한 동우회 회원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과 황군의 전쟁 수행에 정신적 물질적 협력을 다짐
- 0. 이에 따라 그는 물질적 협력으로 국방헌금을 내고, 정신적 협력으로 중국에서 싸우는 일본군을 위문하기 위한 문인 파견에 앞장 섬
- 0. 1939년 10월 29일 결성된 친일문학단체 조선문인협회의 회장이 됨.(그러나 동우회사건 재판에 맡은 일인 판사의 지시로 곧 사임)
- 0. 이후 창씨개명 등 공공연한 친일 행위 계속
- 0.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창씨개명에서 춘원은 술선하여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로 개명하고 다음과 같이 말함.

“지금부터 2천 6백년 전 신무천황께옵서 즉위 하신 곳에 있는 산이 향구산(香久山)입니다. 뜻깊은 이 산 이름을 씨로 삼아 '향산'이라고 하고 그 밑에 광수의 '光'자를 붙이고 '수'자는 내지 식의 '郎'으로 한 것이 香山光郎입니다. ... 조선민족의 장래를 고려한 끝에 가야마 미츠오로 개명하는 것이 좀더 천황의 신민 답다고 믿었기 때문 ... 나아가 일본식 씨를 조선인 전부가 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인 2천 4백만이 진실로 황민화 각오에 철저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되어 조선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므로 창씨개명은 일종의 정치적 운동이다...”

(향산狂郎이라는 조롱을 받음)

0. 학병권유 활동 - 일제는 1943년 10월 20일 육군특별지원병입시채용규칙을 발표하면서 '조선 학생의 징병유예' 항목을 폐지, 이때 춘원은 「징병제의 감격과 용의」, 「학도여」 등의 글과 시가를 발표하며 학병 권유, 1943년 12월에는 최남선과 함께 동경에서 재일유학생들의 출진을 격려하는 학병권유 연설

0. 춘원의 친일 논리 - 내선일체론과 민족보존론

0. 내선일체론 - 진실로 완전한 일본인이 되자!

0. 민족보존론 - 조선인이 내지인(일본인)과 완전히 같아져 함께 황국신민으로 되는 것이 민족보존의 길이다!

“나는 일찍 조선인의 동화는 일본 신민이 되기에 넉넉한 정도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이것에 진정으로 조선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0.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1) 잠재된 일본 선망 의식 - 청소년기의 일본 체험

2) 독립운동에 실망 - 허약한 지식인 체질에 맞지 않은 2년간의 상해 경험

3) 일제의 회유공작으로 자치론자가 됨 - 허영숙, 도쿠토미(德富蘇峰), 아베(阿部充家) 등

4) 독립 가능성에 절망하여 철저한 골수 친일파가 됨 - 일제의 승승장구, 도산 서거

2. 춘원과 도산

0. 독립신문사 사장으로서는 도산의 대변인

0. 원동흥사단 참여

0. 수양동맹회 수양동우회 동우회

- 0. 도산과 춘원의 민족개조론
- 0. 도산 모델 <<선도자>> 저술
- 0. <<도산 안창호>> 저술
- 0. 섬약한 의존형 인물 춘원에게는 안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늘 필요했다
- 도산도 그 중의 하나였으나, 도산 서거 후에는 <막강 일제>가 그 의지처가 되었고 그 상징인 일본천황의 赤子를 자처했다.

3. 춘원과 흥사단

1) 단우 춘원과 도산의 관계 규명 필요

- 0. 1920년 1월 도산의 직접 문답으로 입단 - 도산의 전폭적 신뢰아래 대리인 역할
- 0. 1921년 2월 18일 귀국 의사 표명 - 도산 만류

“지금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적에게 향서를 바치는 것이니 절대불가 오, 군 등 양 인 전도에 대과를 짓는 것이라.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서둘러 내리는 판단으로 행치 말고 냉정한 태도로 양심의 지배를 받아 행하라”

- 0. 1921년 4월 21일 귀국 - 사전 조율로 아무런 처벌 없었음
- 0. 1921년 11월 <<민족개조론>> 집필
- 0. 1922년 1월 상해에서 도산 면담 - 수양동맹회 승인? 묵인? 격려?
- 0. 1922년 2월 11일 서울에서 수양동맹회 결성
- 0. 1922년 5월 <<민족개조론>> 발표
- 0. 1922년 8월 도산, 미주 본부에 춘원 무기정권 처벌 요청

단우 처벌에 관한 의견서(원동발 제6호 ; 1922.7.11)

동발 제6호

단기 4255년 7월 11일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 위원장 안창호

이사부장 송종익 각하

단우처벌에 관한 의견서

제103단우 이광수

우(위) 단우는 본단 원동단우의 수석반장으로 있다가 직을 棄(기)하고 不告而去(불고이거)하여 단우의 신의를 위배하였고 또한 독립운동의 주요한 인물로서 遽然(거연)히 입국하여 우리 독립운동에 불소한 악영향을 여하였으므로 그의 처벌에 대하여 각반의 의견을 청한 결과 그를 무기정권에 처벌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삽기 자에 보고하오니 검사부에 넘겨 심사 처단케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1922.8.10)

0. 1923년 북경에서 도산 면담

0. 1924년 1월 초 동아일보에 자치론을 담은 <민족적 경륜> 발표

2) 춘원에 대한 단 차원의 평가와 공식 조치 필요

3) <<민족개조론>>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자치론 수준의 사이비 민족운동 이론

4) <<도산 안창호>>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민족운동 지도자 도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축소 왜곡, 인격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과장